

# MBTI를 활용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유형

장다운<sup>1\*</sup>, 문효심<sup>1</sup>, 신보배<sup>1</sup>, 유은지<sup>1</sup>, 이서림<sup>1</sup>, 정민채<sup>1</sup>, 조성은<sup>1</sup>, 최혜진<sup>1</sup>, 이해진<sup>2</sup>

<sup>1</sup>재능대학교 간호학부 재학생, <sup>2</sup>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IMS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와 전공의 집단 사직·파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상황은 수술 취소와 응급의료 제한 등의 임상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고, 임상 진로를 준비하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대학 현장에서는 취업 준비의 장기화, 또래 비교에 따른 심리적 부담, 정신건강 상담 수요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경험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취업 관련 인식과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METHODS

1. 연구 설계 :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경험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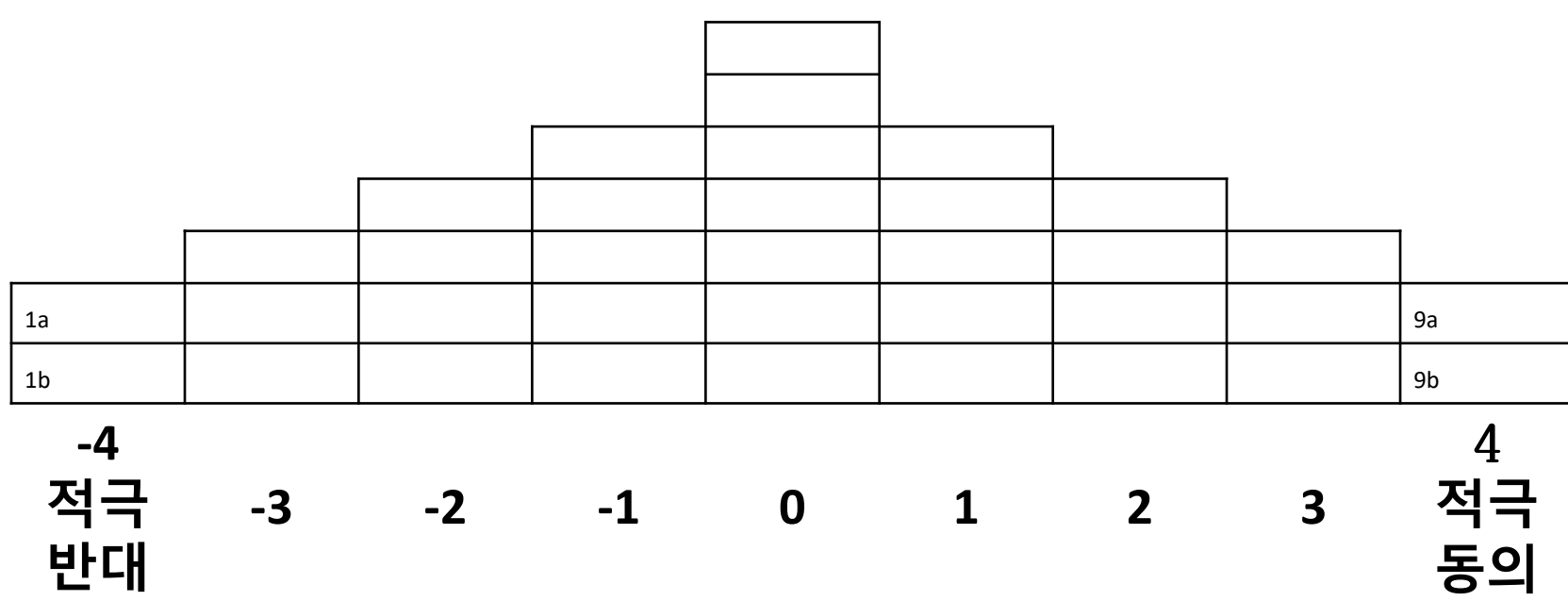
2. 연구 방법 : 문헌고찰과 반복 검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취업 불안 관련 진술문 35개(Q-sample)를 구성

인천 소재 간호학과 학생 40명으로 대상으로 2025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자료수집하였음. 9점 척도 강제분포로 진술문을 분류하고,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성분 요인 추출(고유값  $\geq 1.0$ ) 및 varimax 회전을 실시, 설명력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확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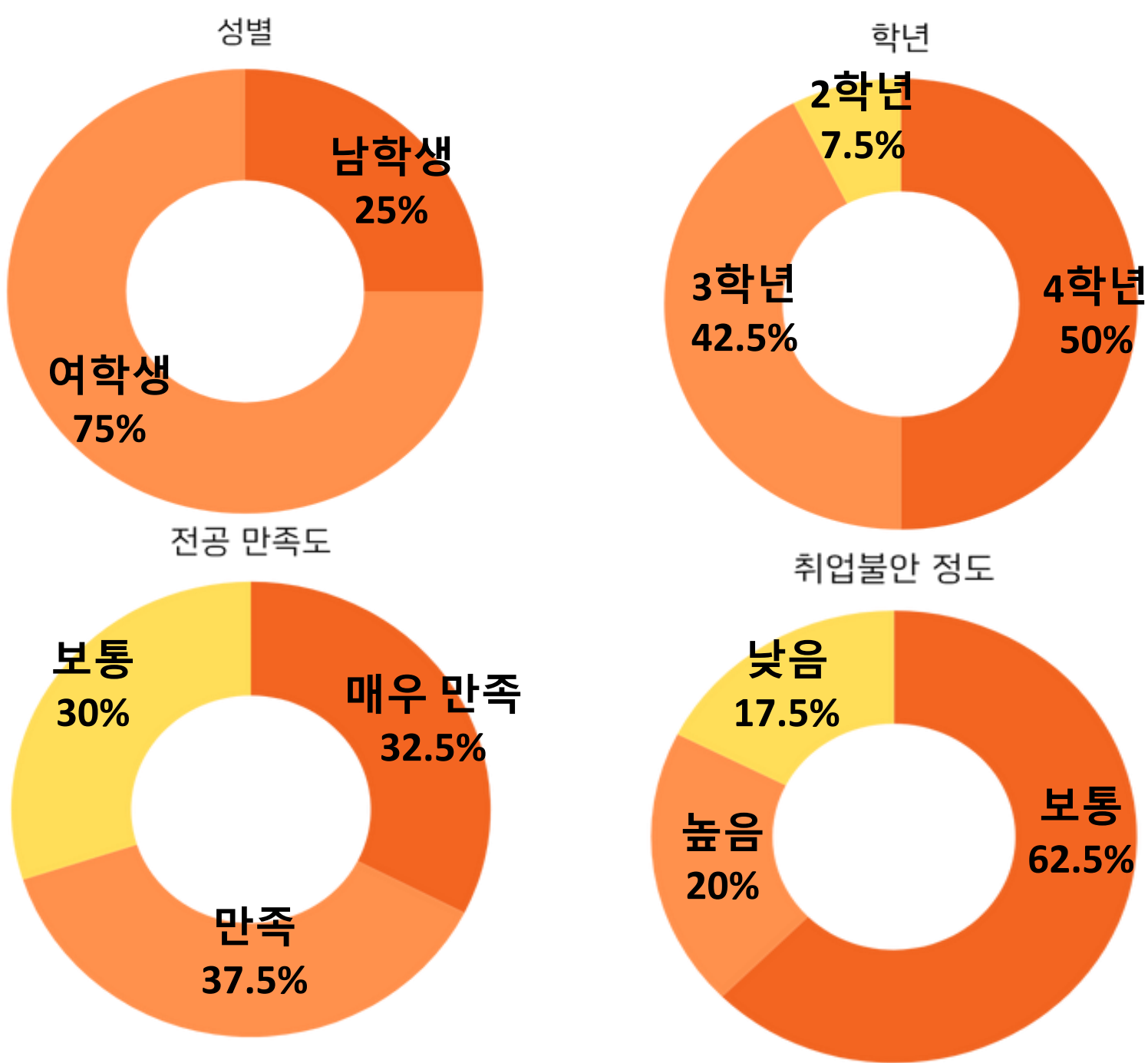
## RESULTS

간호대학생의 취업 불안은 5개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40.7%를 설명하였다. 제1유형은 '대외활동 소극형', 제2유형은 '냉소적 자기주도형', 제3유형은 '성장지향 조급형', 제4유형은 '자기신뢰 전략형', 제5유형은 '교육환경 불만족형'으로 명명하였다.

### 1. Q 표본 분류 분포도



### 2. 대상자 일반적 특성



### 3. Q 유형의 형성

(N=40)

변수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고유킷	6.78	3.86	2.17	1.98	1.46
분산(%)	16.9	9.7	5.4	5	3.65
누적분산(%)	16.9	26.6	32	37	40.7
참여자 수(명)	9	8	9	8	6

### 4. 유형별 특성

유형	이름	인원	MBTI	특징 요약
제1유형	대외활동 소극형	9명	I(77.8%) F(77.8%) P(88.9%)	대외활동 부족, 낮은 전공 만족도, 직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갖고 있으며 명확한 진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함
제2유형	냉소적 자기주도형	8명	I(62.5%) S(62.5%) F(62.5%) J(62.5%)	현실적인 진로 전략을 세우는 능동성을 보이지만, 직업 전망에 대한 회의감과 전공 선택에 대한 후회를 갖는 유형
제3유형	성장지향 조급형	9명	I(55.6%) S(88.9%) F(77.8%) J(66.7%)	전공만족도는 높고, 평균연령이 가장 낮음. 취업 경쟁력에 불안과 조급함을 느낌 계획적 준비, 실행력과 성실성을 지님
제4유형	자기신뢰 전략형	8명	E(62.5%) F(75%) P(62.5%)	명확한 진로목표, 전략적 준비, 자기 확신 기반으로 취업 불안 능동 조절. 남학생 비율이 가장 높음
제5유형	교육환경 불만족형	6명	E(66.7%) T(66.7%)	임상실습 기회, 교육 환경 한계를 취업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인식. 불만족이 진로 불안으로 이어지는 유형

## CONCLUSIONS

-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취업 불안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성격 유형별 맞춤형 진로 상담과 취업 불안 완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제1유형 '대외활동 소극형'에게는 비교과프로그램 및 대외활동 연계, 제2유형 '냉소적 자기주도형'에게는 수용 및 가치기반 중재, 제3유형 '성장지향 조급형'에게는 실습 및 인턴십의 경험 축적의 기회를, 제4유형 '자기신뢰 전략형'에게는 셀프리더십 역량 강화를, 제5유형 '교육환경 불만족형'에게는 교육 환경 개선 제도적 신뢰 회복을 위한 대학 차원의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 불안을 단일 차원으로 다루는 접근을 넘어,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진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진로지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상담 개입 시 유형 기반 맞춤형 접근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